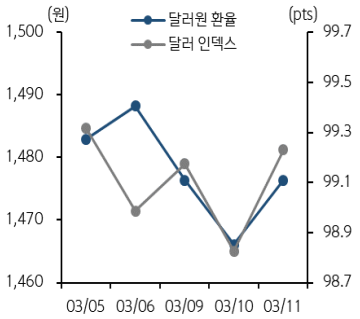
Daily
FX Economist View

2026-3-12

# 독수리 전성시대, 안에서 새는 바가지

## 외환시장




## FX Talk : 금일 1,474~1,485원 전망

**동향** 어제 달러·원 환율은 1,474원에 개장해 하락세를 탔습니다. G7 회원국 주도로 전략비축유 방출이 임박하면서 유가가 잠시 안정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경 1,463.1원을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교전 소식에 유가와 달러가 상승하며 3시 30분 서울 종가 1,466.5원을 기록했고, 새벽 2시를 1,477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망** 간밤 역외 최종 호가 감안시 오늘 달러·원 환율은 1,480원 부근에 개장 전망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략비축유를 대거 방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나 중동의 석유 인프라 정상 가동에 대한 의구심이 유가를 다시 배럴당 $90 위로 밀어 올리면서 1,480원 공방이 예상됩니다.

| 전망치 | 예상 레인지 | |
|---|---|---|
| | 저점 | 고점 |
| 달러원 | 1,474 | 1,485 |
| 달러엔 | 158.6 | 159.5 |
| 유로달러 | 1.151 | 1.159 |

## FX Insight : 독수리 전성시대, 안에서 새는 바가지

작금의 중동 전쟁이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소환하기도 하지만, 당시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시리아가 기습적으로 욤키푸르 전쟁을 일으키고 10월 16일 산유국들이 가격 인상과 생산 감축, 이어 미국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한 1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은 중동의 석유 무기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셰일 혁명'의 마법**을 통해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뿜어내는 세계 1위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 뿐 아니라, 러시아 가스관이 끊긴 유럽을 구원하여 세계 1위 천연가스(LNG) 수출국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이제 중동에 포연이 자욱하면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엑슨모빌과 셰브론 같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수출 마진을 챙기며 표정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중동 위기가 미국에게 마냥 꽃놀이패인 것만은 아닙니다**.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내 휘발유 가격은 유가에 연동에 상승하니 미국내 민심은 들끓습니다**. 특히,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약관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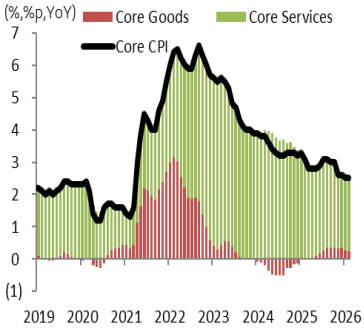
한국(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출퇴근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60%를 훌쩍 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인프라가 촘촘해 유가가 올라도 당장 교통비 타격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교통 출퇴근 비율은 전국 평균 5%에 불과합니다. 뉴욕 등 일부 대도시 도심을 제외하면 90% 이상의 미국인이 매일 자차를 운전해 수십 킬로미터를 출퇴근합니다**.

즉, 미국인에게 휘발유 가격 상승은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 올랐네' 수준이 아니라, **"월급 도둑"에 눈 뜨고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유가의 고공 행진에 민감하고, **다자간 협의를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에는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더구나, 미국 GDP의 70%는 개인 소비에서 나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미국인들은 당장 식료품을 덜 사고, 아마존 쇼핑을 줄이며, 외식을 포기하므로 실물 경제가 둔화됩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유권자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어제 발표된 美 2월 CPI는 전쟁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 Key Chart

< 미국 근원 CPI 추이>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 구분 | 달러/원 | 위안/원 |
|---|---|---|
| 시가 | 1,474.0 | 214.1 |
| 고가 | 1,478.3 | 214.4 |
| 저가 | 1,463.1 | 213.2 |
| 종가[1)] | 1,466.5 | 213.7 |
| 전일비 | -2.8 | 0.1 |
| 평균환율 | 1,467.3 | 213.8 |
| NDF(1M) | 1,478.3 | |
| 거래량 | 189(억불) | 279(억위안) |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 주요 통화 환율

| 통화 | 환율 | 전일비 |
|---|---|---|
| USD/KRW | 1,476.35 | -0.05 |
| JPY/KRW | 929.53 | -2.27 |
| EUR/KRW | 1,708.46 | -1.34 |
| GBP/KRW | 1,980.45 | 13.41 |
| AUD/KRW | 1,056.00 | 12.15 |
| CAD/KRW | 1,086.32 | 6.64 |
| USD/JPY | 158.95 | 0.90 |
| EUR/USD | 1.1567 | -0.0044 |

##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 만기 | IRS | 전일비 | CRS[2)] | 전일비 |
|---|---|---|---|---|
| 1Y | 2.958 | -0.018 | 2.465 | -0.04 |
| 2Y | 3.209 | -0.032 | 2.675 | -0.10 |
| 3Y | 3.342 | -0.035 | 2.800 | -0.12 |
| 4Y | 3.414 | -0.030 | 2.890 | -0.12 |
| 5Y | 3.461 | -0.024 | 2.980 | -0.12 |
| 7Y | 3.521 | -0.014 | 2.995 | -0.12 |
| 10Y | 3.568 | -0.006 | 2.975 | -0.13 |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 구분 | 종가 | 전일비 |
|---|---|---|
| CD 91일물 | 2.83 | 0.00 |
| 통안 1년 | 2.18 | -0.01 |
| 통안 2년 | 3.10 | -0.01 |
| 국고채 3년 | 3.25 | -0.03 |
| 국고채 5년 | 3.47 | -0.04 |
| 국고채 10년 | 3.61 | -0.01 |
| 국고채선물(3년) | 104.80 | -0.17 |

##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 만기 | SWAP Point | 전일비 | Implied CRS |
|---|---|---|---|
| 1M | -130 | -10.00 | 2.68% |
| 3M | -420 | 5.00 | 2.53% |
| 6M | -900 | 10.00 | 2.47% |
| 1Y | -1,570 | -10.00 | 2.54% |

##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 만기 | 국채 | 전일비 | IRS[3)] | 전일비 |
|---|---|---|---|---|
| 1Y | 3.59 | 0.055 | 3.59 | 0.042 |
| 2Y | 3.65 | 0.117 | 3.47 | 0.059 |
| 3Y | 3.67 | 0.119 | 3.43 | 0.053 |
| 5Y | 3.80 | 0.119 | 3.49 | 0.045 |
| 10Y | 4.23 | 0.134 | 3.76 | 0.049 |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 주요 증시

| 증시 | 종가 | 전일비 | |
|---|---|---|---|
| KOSPI | 5,609.95 | +77.36 | +1.40% |
| 미국 DOW | 47,417.27 | -289.24 | -0.61% |
| 중국 상해종합 | 4,133.43 | +10.30 | +0.25% |
| 일본 NIKKEI 225 | 55,025.37 | +776.98 | +1.43% |
| 영국 FTSE 100 | 10,353.77 | -58.47 | -0.56% |

## 기타

| 종목 | 종가 | 전일비 |
|---|---|---|
| WTI (선물) | 87.25 | +3.80 |
| 금 (선물) | 5,179.10 | -63.00 |
| 3M TERM SOFR | 3.67 | +0.01 |
| 3M EURIBOR | 2.14 | +0.06 |
| KOR 5Y CDS | 27.28 | +0.51 |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